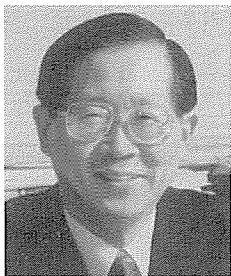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제2부)

물리학 려철기 박사 국제적 명성

필자가 처음 만난 과학자는 1990년 7월 중국 연변에서 있었던 '현대물리학 워크숍'에 참석한 5명의 과학자들이었다.

단장인 려철기박사는 서울대 선배로 미국 국회도서관에 집필한 물리학 책이 소장되어 있는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과학자이다. 이번에는 IT분야의 북한 과학자들을 소개한다.



朴贊謨
(포항공대 대학원장)

본고에서는 필자가 만난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에 대해서 기술하기 때문에 IT분야 과학자가 주로 등장함에 대해 먼저 독자의 양해를 구한다. 필자가 제일 처음으로 만난 북한의 과학자는 물리학자들이었다. 1990년 7월 중국 연변에서 있었던 '현대물리학 워크숍'에 참석한 다섯분의 교수로서 네분(려철기, 김연일, 허영환, 조병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물리학연구소 소속이며 한분(고영해)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수였다. 특히 단장으로 오신 려철기박사님(사진 1)은 과학원 교수로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재학 중 월북하셨는데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지신 분이요 미국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북한의 서적 가운데도 려철기선생님이 집필하신 물리학 책이 포

함되어 있다. 이분들은 연변대학 초대소(Guest House)에 유숙하셨다. 마침 필자는 중국 정부 교육위원회의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연변대학 컴퓨터 분야 발전을 위한 전문가로 초청되어 1개월간 연변대학에 있게 되었는데 역시 초대소에 있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식당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서울대학 선배이신 려철기교수와는 더욱 친하게 되었다. 컴퓨터 사용에 대해 려철기교수께 문의하자 려교수 자신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지만 과학원에 있는 컴퓨터 담당부서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수행해 준다고 하였으며 언어는 주로 FORTRAN을 사용

한다고 하였다. 북한도 지금은 C와 C++, 그리고 Java를 사용할 정도로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그 당시는 여러 면에서 서방 세계보다 많이 뒤져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993년 북경서 2명 만나

다음으로 만난 북한의 과학기술자는 1993년 11월 중국 북경에서 열렸던 '국제 소프트웨어기술 학술회의'에 참석한 김책공대 교수(최성길)와 평양컴퓨터기술대학 교원(오명일)이었다. 최교수는 국제표준화 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많은 분으로 영어도 유창했다. 오명일교원은 젊은 사람이었는데 필자와의 대화도 매우 자연스러웠고 남한의 컴퓨터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컴퓨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기가 수월했다는 오교원은 당시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했는데 특히 영어에 많은 관심을 가져 북경에 있는 동안 밤마다 Star TV의 영어 방송을 듣는다고 했다. 그 동안 만난 북한의 과학기술자들을 볼 때 젊은 층일수록 대화가 수월했으며 영어에도



〈사진 1〉
려철기
과학원 교수
(가운데)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1994년부터 매년 3년간, 그리고 2001년에 연변에서 다시 열렸던 '우리글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에는 매년 10명 내지 20명의 북한 학자들이 참석했으며 3년째는 호텔 침실에서 함께 작업을 할 정도로 친해졌다. 컴퓨터용어 분과는 북한 조선컴퓨터센터(KCC)의 허주박사 방에서 작업을 했는데 허주박사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자동화 분야 공부를 한 과학자이면서도 언어학에도 조예가 매우 깊었다.

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과학기술자는 KCC의 과학자(리수락, 허주, 김명규, 김정국) 외에도 평양정보센터(PIC)의 연구원(양성진),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수(김영환, 김용률),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수(박승채) 그리고 과학원의 연구원(홍기태, 조남호) 등 여러 기관에서 왔으며 사회과학원의 언어학자도 여럿(문영호, 김성근)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회의 때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으며 매우 진지하게 그러나 화기에애한 가운데 의견을 발표하였다.

2000년부터 4번 북한 방문

1996년 9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COMDEX-Asia에는 PIC 전시장이 개설되었고 그 곳에 3명의 북한 PIC 연구원(백광해, 김광철, 윤성국)이 와서 제품에 대한 설명과 데모를 한 바 있다. 그들은 모두 30대 초반에서 20대 후반이었으며 그 중 책임자인 백광해실장은 매우 활발하고 능력이 있었다. 싱가포르 외에도 일본,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등 여러 곳에 다녀본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인도에서는 3개



〈사진 2〉 최주식 PIC 총사장(왼편)

월간 체류했다는 것을 보아 북한이 인도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협력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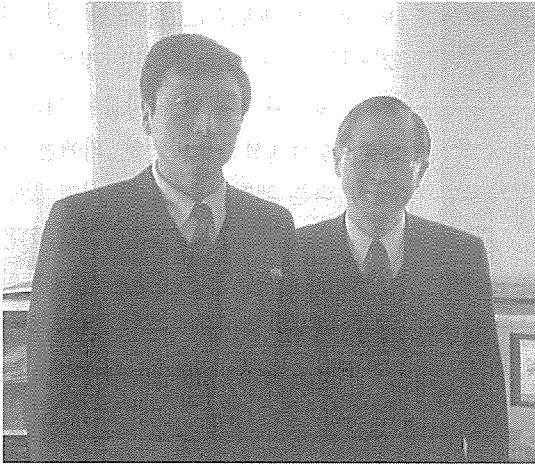
필자가 북한의 과학기술자를 많이 만나게 된 것은 2000년 9월을 시작으로 금년 1월까지 네번의 평양 방문과 특히 PIC와 가상현실 분야의 공동연구를 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평양에서 만난 과학기술자 중 중요한 분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리시흠 과학담당 부총장 및 신태성 정보센터 소장, 김일성종합대학의 정우환 정보센터 소장, PIC의 최주식 총사장, 김유종 기사장, 리상돈 부기사장, 안영남 제1종합실장, 최경호 제2종합실장, 김평한 제3종합실장 그리고 가상현실 공동연구팀

인 정범 다매체프로그램 실장, 정구일 기사를 들 수 있다.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 KCC와 과학원을 방문할 기회가 없어 중국에서 만났던 분 외에는 그곳의 다른 과학기술자를 만나지 못한 점이다. 최주식 PIC 총사장(사진 2)은 금년 55세로서 평양 건설대학 건축학부를 졸업하고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중 1985년부터 컴퓨터에 심취하게 되었으며 IT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신념으로 PIC 설립계획을 세워서 당과 정부의 허락을 받아 1986년 7월 15일 PIC를 발족시켰다. 북한의 '로력영웅' 칭호를 받게 된 최주식 총사장은 성품이 매우 온유하고 쾌활하면서도 기업가다운 실천력과 성취욕이 매우 강한 실력가이다. 그를 보필하는 김유종 기사장, 리상돈 부기사장 및 종합실장들은 주로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리과대학을 졸업한 엘리트들이며 소프트웨어기술에 능통한 과학기술자이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센터의 신태성 소장(사진 3)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부교수이며 북한의 공훈과학자 칭호를 받은 컴퓨터분야 과학자이다. 2000년



〈사진 3〉
신태성 김책공대
정보센터 소장
(왼쪽에서 세번째)



(사진 4) 정우환 김일성대 정보센터소장(왼쪽)

4월에는 북한의 중앙방송에 출연하여 정보센터의 소개도 한 바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에도 정보센터가 있으며 그곳의 정우환소장(사진 4)은 재일 교포 수학자 출신으로 기초과학과 학제간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국어학부, 생물학부, 미술학부 등 여러 학부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필자가 방문했을 때는 3차원 그래픽팀이 만든 소위 북한의 '타이타닉'이라는 대작영화 '살아있는 령혼들' 제작에 삽입될 선박의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보여줬다.

대부분 영어·일어 능통

북한은 최근 컴퓨터교육에 대단한 박차를 가하고 있다. 2년 전 교육성 산하에 프로그램교육센터를 설립하고 KCC의 기술처장이었던 리수락교수(사진 5)를 소장으로 영입했으며 KCC에서 유능한 김명규실장도 이 곳으로 옮겨왔다. 1941년에 일본에서 출생한 리수락소장은 1960년 북송선을 타고 북한으로 갔으며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를 졸업하고 KCC의 기술처장, 박사원장(남한의 대학원장)을 역임하면

서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컴퓨터기술자 양성을 하였다. 지금은 교육성 프로그램교육센터 소장으로 중고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의 교과과정 개발과 교재 집필에 여념이 없으며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컴퓨터 교육을 능가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필자와는 1994년부터 알게 되었으며

2001년 2월 '우리글 컴퓨터처리 국제 학술대회' 때는 심양에서 연길까지 14시간 동안 기차를 함께 타고 가면서 컴퓨터 교육에 관한 의견 교환을 했는데 그의 박식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북한의 젊은 과학자들은 매우 열심이며 우수한 사람도 많다. 1990년대 중반에 마카오에 있는 유엔대학 부설 국제 소프트웨어기술연구소가 주최한 단기간좌에 북한 과학원의 홍기태박사가 참석했는데 그때 강의하던 저명한 미국 교수의 틀린 것을 찾아내서 화제

가 됐었다 한다. 즉 그 교수가 강의한 후 홍박사가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의한 것이 틀렸다는 것을 시인해야만 했던 것이다.

일본에서 매년 개최되는 FOST배 세계 컴퓨터바둑대회에서는 1998년과 99년 연이어 북한의 은비독이 우승을 했다. 이를 개발한 북한의 과학자팀은 20대 중반으로 북한의 수재학교인 제1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일성종합대학 자동화학부(지금의 컴퓨터과학대학)에서 공부한 후 공장 등에 가서 실무 경험을 쌓고 은별컴퓨터기술무역센터에 들어왔으며 그 중 몇 사람은 국제 수학올림피아드에서도 수상한 바 있다. 이들은 우수한 컴퓨터바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일본, 영국 등 다른 나라에서 나온 바둑프로그램을 연구하는 한편 인공지능 등 첨단 컴퓨터기술과 수학을 토대로 한 기초이론을 충분히 활용했다 하였다.

내가 만난 북한의 젊은 과학자들은 대부분 영어와 일본어에 능통했다. KCC에 있던 김명규실장은 UNDP의 특허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하면서 ISO9000 인증을 받기 위해 모든 서류와 사용자 매뉴얼을 영어로 써서 내는데 힘이 들었으나 스스로 해결했다 하였으며 PIC를 방문했을 때는 책장에 일본서적과 영어서적이 많이 꽂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책장 위에는 3단 요가 올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밤에 연구실에서 잘 때가 많아서 준비해 놓은 것이라 했다.

앞으로 남북한의 과학기술자가 보다 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⑤



(사진 5) 리수락 프로그램교육센터소장